

골프코스 조경수 관리

- 골프장 : □□□□ 골프클럽
- 진단일 : 2014년 1월 24일
- 진단자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김 호 준

□ 은행나무 수피 그을음 관리

(1) 진입로 주변

① 현 상태

■ 수피 그을음

- 은행나무 수피의 고유 색깔인 회백색, 배롱나무 수피의 고유 색깔인 적갈색을 타내지 못하고 검게 그을려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

■ 수세약화

- 은행나무는 식재된 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식재 당시의 수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극히 쇠약하고 잔가지 발생 또한 미약하여 조경가치가 크게 떨어짐.

■ 원인

- **흡즙해충 발생** : 수피가 검게 그을린 것은 생육기에 잎, 잔가지, 줄기 등에서 수액을 흡즙하는 각지벌레, 응애, 진딧물 등의 배설물에 의하여 수피가 오염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임. 특히, 배롱나무의 수피 그을음 현상은 「주머니각지벌레」 피해임.
- **식재 및 양생관리 부실** : 식재지 토양불량, 식재불량, 식재 이후 양생관리 불량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쇠약함.

■ 검게 그을린 진입로 주변 은행나무 수피



수피가 검게 그을려 미관을 해치는 은행나무(2014. 1. 24.)

② 향후 관리방안

■ 수피 그을음병 방제

- 기계유유제 살포 : 배롱나무에 발생하는 주머니깍지벌레는 2월에 기계유유제 1,000㎖/ 물20ℓ를 살포할 것. 기계유유제는 약해우려가 있으므로 유념하고 새싹이 피기 15일 이전에 시약하여야 함(원색수목환경관리학 - p. 370 참조).
- 깍지벌레 약 살포 : 생육기에 발생한 깍지벌레는 디메토에이트(로고) 20㎖/ 물20ℓ를 수관살포 할 것(원색수목환경관리학 - p. 363 참조).
- 생육기 깍지벌레 발생유무 점검 : 일반적으로 은행나무는 병해충이 적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깍지벌레 발생이 많아 수세약화를 초래함.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생육기인 7~8월에 잎과 잔가지 등에서의 깍지벌레 발생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시 깍지벌레 약을 살포할 것(원색수목환경관리학 - p. 363 참조).

■ 은행나무 수세약화 치료

- 시비 : 2월 하순~3월 중순경 근원부에서 60~80cm 떨어진 뿌리권 토양을 깊이 20cm, 폭 20cm, 길이 50cm의 도랑모양 구덩이 4개(4방향)를 파고 유기질 비료를 넣은 다음 산림용 고품복합비료를 각각

10개씩 총 40개를 골고루 넣고 묻어줌.

- **멀칭** : 시비 후 거적, 바크, 잔디 예초물 등을 뿌리권에 3~5cm 두께로 깔아준 뒤 물을 뿌려 잠재우고 멀칭 재료 비산 방지용 그물망을 덮어 고정시키거나 줄의 띄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함. 예초물로 멀칭을 하면 잔뿌리가 무수히 나오지만 가뭄기에 멀칭 재료가 마르면 뿌리도 말라죽으므로 멀칭 재료가 마르지 않도록 관수해야 함.
- **Water bag 설치** : 향후 1~2년간 뿌리권에 물분을 만들고 7일 이상 가뭄기에는 수시 관수하되, 인력여건이 안될 경우 관수용 물주머니를 달아 수분공급